



평화의 도구

제 182 호

2008년 10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율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평의회원보조 : 김재련 안젤라 sfo 562-694-1919
 평의회: 매월 첫째 일요일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8호실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형제회 소식

▶오늘 (10월 19일) 은 형제회
월례회겸 돛자리 피정입니다.

돛자리피정순서:

시작기도—>낮기도,—>전체 강의
20분—>각조별 토의 및 나눔

장소: Ralph Clark Regional Park
8800 Rosecrans Ave,
Buena Park, CA 90621)

갈비와 음료수를 제공하여 주신 곽춘
무 데레사 자매님과 곽인애 막달레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외
에도 평의회원들및 각 지역구별로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 Francis Region Annual
Gathering (지구형제회 전체모임)

일시: 10월 25 일(토) 9am-4pm

장소: St. Gregory's Great
Church Parish Hall
13935 Telegraph Rd.
Whittier, Ca. 90604

**각 지역구 별로 Carpool 하여
가시기를 권합니다.

▶북남미 연수회사진및

각 형제회 장기자랑 DVD 도착

필요하신 분들은 박용원 야고보
형제님에게 신청하십시오.

▶11월 월례회및 서약식/입회식

일시: 11월16일(일) 12:30pm-

장소: 성토마스 한인 성당

주례: 김재섭 마리비안네 신부

서약예정자: 6명

최화자 안젤라, 마수연 안나

임민웅 베드로, 김성희 데레사

김춘옥 스텔라, 곽인애 막달레나

▶이라크파병 군인들을 위한
기도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조국을 위
하여 열심히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이 매튜 (이세홍 바오로형제
님 장남) 군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도록 기도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곽춘무 데레사 자매님의 차남 곽
대덕 어거스틴 형제님께서 지난
9월23일(화) 주님의 품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순 데레
사 자매님의 어머니이신 현음천
마리아 자매님께서 지난 10월1일
(수) 한국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
아 가셨습니다.

주님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
를 누리시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10월 돛자리 피정 식사준비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월은 제 11구역

병환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에스돈 율리안나

이강림 막달레나

박계옥 안나

이수경 안나

백병길 힐데갈드

이복내 마르타

김화성 바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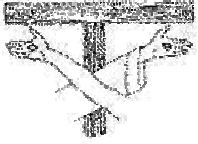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10월 3일	김재련 안젤라
10월 16일	서경자 세실리아
10월 25일	이복내 마사
10월 26일	마수연 안나
10월 28일	이정수 테레사
10월 29일	박영원 데레사

나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입회



정치영 요한 보스코 서약 준비반

지난 번 월례회 때 나의 입회에 대한 글을 부탁 받았다.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나는 문학에는 아예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전쟁터에 휩쓸려 잃어버린 나의 배움의 시간도 한 몫을 한다. 오죽하면 대학시절 국어 과목을 “D”를 받았을까? 교양 없게도……!

내 나이 네 살때,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는 올망졸망 형제들과 한 살 짜리 동생을 두고 먼 하늘나라로 서둘러 가셨다. 6.25 전쟁 후, 어머니가 그리운 나의 마음은 무더위에도 냉가슴이었고 매일 매일의 생활이 가난과 고난의 체험 현장이었다.

나도 어렵게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는 주제에 부모 잃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고도 도와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던 중 살레시오 신부님이 계신 도림동 성당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처음으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마음 설레는 세례성사를 받았다. 요한 보스코 성인의 삶과 그의 청소년을 위한 헌신적인 삶이 나의 마음을 벅차게 하였고, 나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며 요한 보스코로 본명을 정하였다.

그 후 바로 해군에 자원 입대 하였고 해군 군종 신부님이셨던 박도식 신부님과 김은식 신부님께서 어려운 군대 생활을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은총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3년의 해군 생활을 마치고 나니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하려던 마음은 약해지고 여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온 나에게는 여인의 사랑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가장으로서 정신 없이 살았고 도미하여 학교와 직장생활을 겸하느라 뒤돌아 볼 틈 없이 살다보니 학창시절 마음에 담았던 “고아들을 위하여 일 하겠다”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느새 순례여정의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몇 년전부터 얼마 남지 않은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가서 마침표를 찍을까 생각하던 중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대한 DVD를 보고 또한 주위의 프란치스코인들의 삶을 보고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하였다.

입회 준비기간 프란치스코 성인 및 글라라 성녀의 삶을 묵상할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익숙하게 살아온 내가 과연 충실한 프란치스코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아닌지 분별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입회하기로 하였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충실한 프란치스코인으로 본분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영성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가 자기들의 형제들이 교회에서 고위 성직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겸손한 대답

로마시에서 유명한 두 등불인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가 후에 교황이 된 오스띠아의 추기경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오스띠아의 주교가 마침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지도자와 고위 성직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탐욕에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고 모범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왜 그들 가운데서 주교와 고위 성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느 쪽에서 먼저 대답할 것인가를 두고 두 성인은 서로 경양하였다. 마침내 성 프란치스코에 앞서서 성 도미니코가 먼저 대답하는 것이 겸손하게 순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성 도미니코께서 먼저 말하였다. “주교님, 내 형제들이 각성만 한다면 이미 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이 고위 성직자에 대한 꿈조차 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추기경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주교님, 내 형제들은 더 위대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작은 형제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자기들을 비천한 곳에 머물게 하고, 성인들의 눈에 다른 사람 이상으로 높여져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교님께서 그들이 하느님 교회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신다면 그들의 소명대로 살아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높은 자리를 열망한다면 그들에게 알맞은 자리를 맡겨 주시되 고위 성직자 자리에는 오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것이 두 성인의 대답이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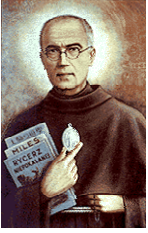
오스띠아의 주교는 그들 두성인의 대답에 많은 감화를 받았으며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그들 두 성인이 함께 주교관을 떠나며 성 도미니코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그가 두르고 있는 띠를 자기에게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청했다. 그가 사랑으로 이 요청을 했지만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도미니코 성인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그는 이 띠를 얻어 자기 수도복 안에 매었고 그로부터 계속 매고 다녔다. 그리고는 손을 마주 잡고 우정어린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서로를 칭송하였다. 성 도미니코께서는 “형제 프란치스코여, 나는 당신의 수도회와 나의 수도회가 하나가 되어 같은 회칙으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성 프란치스코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수도자들이 이 거룩한 사람의 본을 받아야 한다고 진실로 말합니다. 그의 청정의 완덕은 정말 놀랍습니다.”하고 말하였다.

- 완덕의 거울 43 -

겸손히 자기를 낮춤

1. 알고자 함은 사람마다 가진 천성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지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 사정을 돌보지 않고 일월 성신의 도는 길을 익히 연구하는 교요한 철학자보다도 하느님을 섬기는 촌 백성이 확실히 더 낫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낮추며 사람의 칭찬을 즐기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를 행실로써 심판하실 하느님 대전에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2. 너무 과히 알고자 하지 말아라. 거기서 큰 분심거리가 많이 생기고 많이 속는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식하게 보이고자 하고 지혜롭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한다. 안다 해도 그다지 영혼에 유익하지도 않거니와 혹 아주 무익한 것도 많다. 자기 영혼 구하는 데 도움되는 것은 제쳐 놓고 다른 사정에 열중하는 사람은 실로 미련하다. 허다한 말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착한 행실은 정신을 새롭게 하고 조출한 양심은 하느님께 대한 의뢰심을 준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편 (IV)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물, 물을 주시오. 물 !" 하고 사형수들은 애원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말없이 형리들을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형리들은 신부님의 눈길을 견딜 수 없어

"저리로 눈을 돌려 ! 그렇게 우릴 보지 말아 !"

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형리들은 수근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단 말이야."

며칠이 지나고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축일 전 날이 왔습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님의 감방에는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은 4명뿐이었고,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부님뿐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방에 갇힌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 보름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견디어 온 것입니다.

습기 때문에 온 몸에 진물이 날 정도였지만 신부님은 이미 그런 것은 느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옆에 누워 있는 최후의 세 사형수와 같이 이제 하느님 앞에 불려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주사기를 꺼내자 신부님은 스스로 양상한 팔을 뻗쳐 죽음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잠시 후,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은 여느 때와 같이 머리를 약간 옆으로 숙이고 벽에 기대앉아 큰 눈을 뜨고 한 곳을 쳐다본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신부님의 얼굴은 한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의 시체는 일그러지고 참혹했지만,

신부님의 시체는 깨끗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들은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동료들은 신부님의 시체를 화장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형수들과 똑같이 신부님의 시체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는 화장터의 가마솥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1941년 8월 14일 성모님의 승천 축일 바로 전 날,

신부님은 붉은 관과 흰 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1945년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의 시복 조사를 위해 파도바, 바르샤바, 나가사키, 로마 등에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드디어 1971년 10월 17일 시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거행되는 시복식에는 신부님께서 수용소에서 살려 준 가조프니체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조프니체크는 눈물을 흘리며 신부님이 복자가 되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1982년 10월 10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신부님의 거룩한 삶을 받들어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